

# 문재인·안철수 적폐청산 공방... 홍준표·유승민 해묵은 색깔공세

## 말싸움으로 끝난 스탠딩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19일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안보관과 공약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후보들은 이날 처음 도입된 '스탠딩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대선레이스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집중 공세의 타깃이 됐다.

보수 성향의 홍, 유 후보는 사드배치·햇볕정책 등 안보 이슈를 앞세워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압박했다. 진보 진영의 심 후보 역시 같은 범진보진영 후보로 평가되는 문 후보를 향해 복지공약 등에서 날을 세웠다.

문 후보에게는 안보 이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유 후보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하는 뜻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당시 문 후보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는지가 논쟁이 있다. 청와대 회의록을 봐서 (문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압박했다. 또한, 홍, 유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문 후보를 협공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문 후보는 "언제까지 색깔론을 이어가겠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보수층 일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안 후보도 견제를 받았다.

사드배치와 관련, 문 후보는 "국민의당에서는 안 후보 혼자 사드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모든 당의 의견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특검도 쟁점이 됐다. 유 후보는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이 김대중을 대북송금 특검으로 골라 보냈다'고 얘기했다.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평가하나"라고 안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가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나아가 "박지원씨가 당의 실세인데 어

## “北 주적인가” 文에 질문 집중

安은 사드배치 집중공격 받아

洪 “박지원 내보낼 의향 있느냐”

安 “국민의당은 내가 창당했다”

땡개 사드배치 당론을 바꾸겠다. 시중에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에서는 박지원이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온다. 내보낼 의향이 있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갑자기 '박지원 상왕론'이 나왔는데, 제가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지금 하는 말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사장이라는 주장과 똑같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안 후보는 적폐세력의 지원을 받는다'는 발언과 관련, 유 후보에게 "문 후보가 국민을 적폐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문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제 얘기를 오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맞했고, 안 후보는 "이런 것이 적반하장일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자폭탄"과 관련해서도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최근 전인권씨가 저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정말 수모를 당했다. 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가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제가 한 말은 아니다"면서도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문자폭탄을 보낸다면 옳지 않다"고 답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후보들은 처음 겪어보는 토론 형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 후보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응답하는 게 무슨 스탠딩 토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총량제니까 한 후보에게 답변과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동등하게 배분해주는 노력이 있다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처음 시도하는 형식이라서 나름대로 괜찮았다"며 "다음부터 후보들이 좀 더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실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9일 밤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회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회는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19년 연속 (1999~2017) 가정용 보일러 브랜드 파워 1위

www.krb.co.kr

**샤워하다가 갑자기 찬물 나오는 보일러! 다 옛날 얘기 아냐?**

라고 하신다면

**가스비? 요즘 보일러는 다 조금씩 나오는 거 아냐?**

라고 하신다면

**지진이 발생하면 보일러는 당연히 알아서 멈추는 거 아냐?**

라고 하신다면

거꾸로 태워 잡는 귀뚜라미만의 보일러 기술

**당신의 보일러는 이미 귀뚜라미입니다**

-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는 원격제어 시스템
-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 기능
- 샤워 중에 찬물이 나오지 않는 한국돈돌에 맞춘 저탕식 보일러
- 안전 관련 기술인 가스누출 탐지기와 지진감지기가 내장된 보일러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 방지 1등급의 친환경 보일러
- 한 달만 비교해도 가스비 절약을 알 수 있는 고효율 보일러
- 전국 어디서나 빠른 A/S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서비스체계

문의 1588-9000

Kiturami

## 격화되는 ‘北 주적’ 논란

안철수 “北 주적, 국방백서에 명기”

문재인 “남북관계 개선후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20일 '북한 주적(主適)론'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전날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것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적 논란과 관련,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며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엄연히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라며 "문 후보가 주적에 답변을 못한 것은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適)'으로 규정할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있

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백군기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없다. 2005년이 개념이 삭제된 이후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안 후보는 어떤 국방백서를 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도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본부 제2실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혐의 인수 문제와 관련,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자기에게 전량 몰아주기, 자기 배정, 자기거래라는 점에서 삼성 SDS보다 더 나쁘다"며 "꼼수로 재산을 부풀린 과정에 대해 안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의 대구유세에서 조중천 의원은 '국민의당 지역구 의석 26개 중 23석이 전라도다. 저기가 전라도당이, 왜 우리가 전라도당이냐'고 호남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대동고 조장했다"며 "문 후보와 민주당은 해묵은 지역감정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통일부 “北 적이자 동반자”...국방부 “주적개념 사용 안해”

통일부는 20일 전날 열린 5당 대선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主適)'으로 규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법체계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려울 때는 인도지원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

도를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고,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전날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방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